

고흥 출신 역도 신록, 아시아를 번쩍 들다

아시아주니어선수권 금메달
인상·용상·합계 모두 1위
한국 역도 '라이징 스타'로
전남고 조민재 용상 동메달

신록은 지난해 12월 타슈켄트에서 치른 2021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조민재(18·전남고)는 용상에서 147kg을 들어 동메달 1개를 땀다.

조민재는 인상에서 114kg으로 4위에 그쳐,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261kg으로 4위에 머물렀다. 3위 아자마트 톨레겐(19·카자흐스탄)의 기록 262kg(인상 112kg·용상 150kg)과 1kg 차였다.

신록은 고흥고 재학시절 전국체전 역도 3관왕에 올랐다.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결선에서 인상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들어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같은 체급 실업팀 선배들도 아직 실전에서는 듣지 못한 용상 163kg을 고교생인 신록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록은 형인 신비와 함께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에서는 당시 고1이던 신록과 고3이던 신비 형제가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록은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2개,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중학무대를 주름잡으며 일찌감치 스타성을 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신록(가운데)이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은 용상에서 3위에 오른 조민재. /연합뉴스

광주체고 태권도 전국대회 남녀 동반 종합우승

김가현·김지연·박시현·나정후 금
개교 50년만에 첫 남녀 동시 제패

광주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개교 50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일 광주체고에 따르면 남녀 태권도부가 최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이같은 성적을 일궈냈다.

태권도 종목 남녀 동반 종합우승은 1972년 광주체고 개교 이래 처음이다.

광주체고는 여고부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가현은 라이트급, 김지연은 웰터급, 박시현은 라이트헤비급에서 우승했다.

남고부도 금1, 은1, 동1개를 따내 종합 1위에 올랐다.

나정후는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제희는 헤비급에서 은메달, 이정훈은 라이트미들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태권도부.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육고 권은진 코치(여고부)와 김의철 코치(남고부)가 남·여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광주체육고 김재안 교장은 "태권도부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며 "10월에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가현(오른쪽)의 경기 모습. <광주체고 제공>

한편, 이번 대회는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3000여 명의 선수, 900여 명의 지도자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특급 스타' 이상혁·황선우 특별 관리

체육회, 훈련 지원비 별도 제공

기초 종목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육상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과 수영 자유형의 황선우(19·강원도청)가 대한체육회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이상혁은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보다 앞서 황선우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경연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메달을 수확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대한수영연맹이 종목의 대표 얼굴이자 특급 스타인 이상혁과 황선우를 우선 관리한다.

여기에 대한체육회가 더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한다.

체육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을 거쳐 세계와 맞

서 싸울 만한 한국의 간판으로 성장한 두 선수를 2024 파리올림픽 '스페셜 케어'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후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육상, 수영 종목에 일괄 지원하던 훈련비와 별도로 이상혁, 황선우에게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명확하게 정한 지원비를 제공한다.

또 이상혁과 황선우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실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 파트너를 전담팀의 정식 일원으로 승격했으며 기존에 배정된 국외 전지훈련비 외에도 국외 체재비의 일부를 체육회가 부담하는 특별 후원도 한다고 체육회는 20일 소개했다.

전담팀의 일원이 되면, 훈련 일수에 따라 일당 등이 따로 지급되므로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기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초강세를 유지해 온 종목을 '톱 10', 앞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이 가능한 종목과 전통의 메달박스 종목을 'G1', 아시안게임 메달 종목을 'G2', 프로 위주 종목을 'G3'로 분류해 지원을 달리한다.

올해 'G1'으로 분류된 이상혁과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메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톱 1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체육회는 특별 지원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런 취지로 이상혁과 황선우를 비롯해 종목별 우수선수 20명을 파리올림픽 유망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차근차근 선정해 갈 것이다. /연합뉴스

전인지, 이민지·킵초와
에비앙 챔피언십 동반 라운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2연승에도 도전하는 전인지(28·사진)가 이번 시즌 다른 '메이저 챔피언'들과 에비앙 챔피언십 1·2라운드를 치른다.



20일 발표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1·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전인지는

21일 오후 3시 27분(한국시간)부터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 10번 홀에서 이민지(호주), 제니퍼 킵초(미국)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전인지는 지난달 열린 메이저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에서 우승, 2018년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이후 3년 8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바 있다. 이후 재충전 시간을 보내고 이번 대회에 나선다.

같은 조에서 경기할 이민지는 지난달 US여자오픈, 킵초는 4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라 이번 시즌 메이저 챔피언십 3명이라는 조에서 이틀간 샷 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인지는 2016년, 이민지는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이기도 하다.

세계랭킹 1위이자 2019년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인 고진영(27)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안나 노르드qv비스트(스웨덴)와 같은 조에 들어갔다.

박민지(34)는 앤절라 스탠퍼드(미국), 린 그란트(스웨덴)와, 김효주(27)는 해나 그린(호주), 후루에 아야카(일본)와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김세영(29)은 브룩 헨더슨(캐나다), 제시카 코다(미국)와 한 조에 편성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외계+인 1부
 - 2관 미니언즈2
 - 3관 미니언즈2, 토르: 러브 앤 썬더
 - 4관 외계+인 1부, 범죄도시 2
 - 5관 탐간: 매버릭
 - 6관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 9관 외계+인 1부
 - 7관 세네케르 외계+인 1부, 토르: 러브 앤 썬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 8관 세네케르 외계+인 1부, 헤어질 결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